

양파 '노균병' 방제 철저히 해야

완주·부안 등 양파주산지 주의... 감염전 4회 약제 처리시 발병률 8.6% 떨어져

도내 양파 주산지 생산농가들은 10월 중순부터 '노균병' 방제를 철저히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등 대다수 주산지에서 내년도 양파 재배를 크게 줄일 예정인 가운데 전북지역 주산지들은 재배 면적을 별로 줄이지 않아 '노균병'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양파 재배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노균병'이 걸리게 되면 월동 뒤 생육 재생기에 식물체는 자라지 못하고 잎이 연녹색을 띠면서 생육이 정지한다.

1차 노균병은 월동 뒤 2월 중하순부터 증상이 나타나며, 이때 노균병의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병든 포기에서 대량의 포자가 발생해 2차 노균병의 전염원이 돼 4월부터 전 포장으로 병이 확대된다.

그런데 1차 노균병 증상은 월동 뒤

에 나타나지만 그 병원균은 월동 전부터 감염이 시작돼 겨울 동안 식물체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사전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파 1차 노균병은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 정식 시 47%~82% 감염되는 것으로 조사돼 월동 전 묘상이나 본포에서 감염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1차 노균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양파 육묘 시기인 10월 상순부터 방제가 중요하며, 4회 약제 처리할 경우 발병률은 15.7%에서 8.6%로 떨어진다. 또 육묘상에서 뿐만 아니라 1차~3차 방제를 할 경우 2차 노균병 발병률까지 크게 낮출 수 있다.

특히, 1차 노균병은 병든 식물체만 수확이 불가능한 반면, 2차 노균병은 양파 발 전체에 동시에 발생해 양파 수확량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며

로 내년 4월에는 1주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약제 살포가 필요하다.

채소과 권영석 농업연구관은 "양파 1차 노균병은 파종 전부터 방제 계획을 세워 묘상관리 및 월동 전부터 철저히 방제를 해야 발병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발표한 '2017년도 양파 재배 의향면적'에 따르면 조생종의 경우 국내 최대 주산지 전남이 -8.8%를 줄이는 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만생종의 경우에도 전남 -3.0%를 비롯, 경남 -6.0%, 경북 -7.1% 등 대다수 주산지들이 재배면적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북은 중만생종 면적만 -3.3% 줄이는 등 전국 평균(-5.8%)에 크게 못미치게 줄일 것으로 보여 '노균병'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김민근 기자



대세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유행중인 17일 서울 중구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순창 장류축제 '농특산물' 인기몰이

특별판매 행사로 5500만원 실적

기간중 농특산물 특별 판매 행사를 운영하여 농특산물 직판장 2100만원, 특산물 판매코너 3,400만원 등 5,500여 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번 순창장류 축제 기간 동안 농특산물 직판장 및 특산물 판매 코너에서는

오전 일찍부터 농특산물을 구매하려는 관광객들이 몰려 순창 대표 계절 명품인 구지팽, 왕대추, 고구마, 밤 등이 이른 시간부터 품귀 현상이 보이는 등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다.

특히 농특산물 판매코너에서는 음면의 대표 농특산물을 다양하게 구

비 진열하여 볼거리 창출과 아울러 시식을 통한 적극적 홍보 판매로 농가 소득은 물론 순창 고유의 맛과 향 등 품질의 우수성을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축제의 장을 가졌으며, 또한 농특산물 직판장에서도 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판장내 카페 쉼터 제공과 아울러 다양한 건조 농산물, 장류제품, 도자기 등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 관광객들에 큰 각광을 받았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순창군 농특산물이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겨래 활성화와 품질 향상에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기자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완공"

농어촌공사 군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임우순)가 과학화된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TM/TC)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7,785ha에 남미없는 용수를 공급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리시설물 관리에 활용할 목적으로 양배수장6개소, 수문12개소 및 CCTV 34개소에 완

벽지에서 가동할 수 있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TM/TC)을 완료했다.

군산지사는 이를 통해 2017년 영농 급배수에 적극 활용 대응업인 서비스 향상 및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임우순 지사장은 "군산지사에서 시행되는 개보수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대화된 물관리체계가 확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 기자

농진청, 전북화훼농가 돕는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고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식원 꽃 소비 촉진 운동'을 실시한다. '테이블 위에 꽃을(1Table

1Flower)' 운동은 분청과 4개 소속 기관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직원 330명의 책상과 사무실 테이블에 매주 월요일 397개의 꽃을 배송하고, 잠미꽃 팔아주기(100명) 등을 통해 매일 844만원 상당의 꽃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도-농협, 도내 명품 한우 소비촉진 행사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오늘부터 3일간 할인판매 10시부터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은 오는 19일부터 3일간 전주종합경기장 내 수영장 앞 주차장에서 전북 명품(名品) 한우 소비촉진행사를 실시한다.

행사가간 동안 소비자들을 위해 '사랑의 국밥 나누기' 행사와 '한우고기 할인판매' 및 '한우고기 나눔행사'도 실시한다.

'전북 명품 한우 소비촉진행사'는 봄·가을 매년 2회씩 실시하는 행사로, 올해는 한우고기 상승과 청탁금지

법 시행 등으로 한우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한우고기 소비촉진 붐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전북 4대 브랜드 '참예우', '장수한우', '단풍이만한우', '총체보리한우'에서는 1등급 한우고기 등심 8t19,000/Kg 국거리 불고기를 3만7,000원/Kg에 판매한다

또한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1만원권 상품권을 선착순 500명에게 증

정하고, 선착순 600명 한정 매일 200명에 한해 한우불고기 500g 1팩을 1만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권을 증정한다.

사랑의 국밥 나누기 행사는 고산농협 농가주부모임 자원봉사단이 행사장을 찾는 고객과 소비자 800명에게 19일 점심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14개 시·군 17개 시설의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해 한우고기를 10kg씩 공급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미래 농업용 로봇 발전 방향 모색

오클랜드대학교 기술교류

전북테크노파크(TP, 원장 백두옥)는 14일 국내 농업용 로봇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전주 르인호텔에서 국내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용로봇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농업용 로봇 전문가인 브루스 맥도넬드 교수와 안호석 교수 등 전문가 5인이 참석했으며, 뉴질랜드에서 추진하는 농업용 로봇과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 교류가 진행됐다.

브루스 맥도넬드 교수는 현재 뉴질랜드 로봇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오클랜드대학교 자동화 로봇연구그룹의 수장으로 뉴질랜드 로봇산업 육성을 이끄는 전문가이다.

현재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에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키위수확로봇을 개발해 현장 실증 중이며, 향후 본 기술을 사과 수확에 적용할 계획이다.

농업용 로봇 발전을 위해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는 도내 농업용 로봇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에 적용 가능한 로봇 개발을 제안했다.

농작물은 생육시기가 길고 노지 환

경이 달라 현장 실증 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각국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공동 현장 실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도내 농업용 로봇 전문가인 (주)하다(하종우 대표)는 시설용 방제 로봇을 (주)그린센시스(이도희 대표)는 노지용 방제로봇, (주)로보닉스(권대희 대표)는 시설화훼 운송로봇, 동양물산주식회사(김정훈 부장)는 무인자율주행 트랙터, (주)다운(최영경 대표)는 축산물 섬유질 급이로봇에 대해 로봇 현황 및 기술을 소개했다.

/김민근 기자

농협, 하반기 정규직 950여명 신규채용 밝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정규 농·축협 등은 하반기 총 950여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규모는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 계열사 90여명,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 180여명, 전국 농·축협 680여명 등이다.

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및 NH농협은행 등 15개 법인의 지원서 접수는 17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지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12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국 농·축협은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고, 이달 23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은 학력, 연령, 전공, 자격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이며(일부분야 제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단, 각 법인간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 /김민근 기자

KT&G 전북본부, 전주 한옥마을서 외국인 유학생과 한복 패션쇼

KT&G 전북본부(고경찬)은 지난 15일 전주 한옥마을 공예품 전시관 특설무대에서 'JB 한상패션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대 재학생인 외국인 유학생 약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복 패션쇼와 전통주 체험, 사물놀이, 한국음악 버스킹, 퓨전밴드, 댄스 등이 진행됐으며 JB 한상패션쇼의 기획과 운영은 상상Univ. 대학생 운영진 상상패션즈가 주도했다. 고경찬 본부장은 "앞으로도 대학생과 전주시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2017 S/S헤라 서울패션위크 개최

아모레퍼시픽 헤라가 공식 후원하는 '2017 S/S(봄/여름) 헤라 서울패션위크'가 1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2일까지 6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

두 시즌에 걸쳐 성공적으로 서울패션위크의 백스тей지를 지휘한 헤라는 이번 시즌에도 70개 브랜드 디자이너들의 백스тей지 메이킹업을 총괄 지원한다. /뉴시스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